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정규화**   1. 1차 정규화 2. 2차 정규화 3. 3차 정규화 4. BCNF 5. 4차 정규화 6. 5차 정규화  *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건 5차 정규화   굳이 Region을 나눈 이유: 정규화  **데이터 정규화**  중복되는 테이터를 테이블로 나눔 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-> 공통 데이터 / 공통 코드  각각의 테이블들이 고유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  * 완전 정규화  |  | | --- | | CHAR: 고정길이 문자열 | | CLOB: 고정길이 문자열 | | DATE: 고정길이 문자열 | | NUMBER: 고정길이 문자열 | | VARCHAR2: 고정길이 문자열 |   VARCHAR2와 CHAR의 차이:   * 둘 다 5글자이나, CHAR는 ‘A’를 넣으면 ‘A ‘가 됨 * VARCHAR2는 ‘A’임 * 즉, VARCHAR는 최대 길이만 안 벗어나면 됨, CHAR는 길이에 맞춰짐   실제로 CHAR는 길이가 이미 정해진 Y/N과 같이 글자에 사용, 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글자에서는 VARCHAR2를 사용  CLOB: 길이제한 없는 문자열 |